

젯앰프드 사수기

잊혀진 게임이었던 갯앰프드의 부활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사건은 ‘친칠라’라는 유튜버가 갯앰프드 게임플레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친칠라는 채널명과 동일한 아이디로 활동하는 갯앰프드 플레이어다. 그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염소 모양의 스킨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에 어울리는 고약한 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친칠라는 게임 내에서 일명 ‘번지’라고 불리는 기술을 유독 잘 구사했다. 갯앰프드의 맵들은 캐릭터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지면 외에는 전부 낭떠러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으로 떨어지면 화면 밖을 벗어날 때까지 한 없이 추락하다 낙다운 되기에 번지라고 부른다. 번지는 제대로 된 기술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하지만 상대방을 약 올리기에는 매우 효과적이고 20년이 넘는 플레이타임 만큼이나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플레이어들을 고의로 툭툭 쳐 낭떠러지로 밀어트리는 것은 예삿일이고 문 옆에서 매복하다가 들고 있는 야구배트를 휘둘러 장외로 흩날리키는 방식은 이제는 누구나가 한번쯤은 시도해보는 갯앰프드의 입문의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번지의 유일한 약점은 번지를 시도하는 자신도 아찔한 낭떠러지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타이밍에 야구배트를 휘두르지 못한다면 매복이 들키면 되려 역공을 당하기 쉽다. 자신이 휘두른 배트가 파울인지 홈런인지 재빠르게 파악하는 순발력이 있어야만 번지계의 4번 타자가 될 수 있다.

친칠라는 이 번지와 관련된 자질에서 만큼은 그 저명한 ‘페이커’ 못지않다고 유저들은 극찬을 아끼진 않은 했다. “아 소대가리 새끼 게임 애미 없는 것처럼 하네?” “힘 존나 셌네. 염소 수육해서 몸보신 하고 옴?” “한겨울이라 덜덜 떨고 있었는데 니새끼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팬티만 입고 뽀뽀한다.” 등등.

친칠라는 마치 자유로이 절벽을 타는 염소처럼 유저들의 역공을 가볍게 피한 후 채팅으로 극찬에 화답하곤 했다.

“형님덜, 칠르가즘 오지게 온다><♥”

한창 때 귀여니 소설 좀 본 듯한 이모티콘풍의 대화와 그와 어울리지 않는 걸걸한 입담,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고 난 직후 귀여운 고양이 춤을 추는 친칠라는 유저들 혼을 쏙 빼놓기에 알맞은 캐릭터를 구사하고 있었다. 지금 보니 친칠라의 잠재된 스타성에 비하면 그의 애교를 보러 몰려온 구독자들은 덤이라고 해도 좋을 성싶다.

친칠라가 플레이 영상을 자기 채널에 개시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게임영상을 보고 추억에 빠진 감상을 짙막하게 남기는 수준이었다. “번지 저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냐? 오랜만에 봐도 개열 받는다.” 라던가 “옛날에 갯앰프드 무지하게 했었는데 말이죠. 다시 봐도 재밌네요.” 같은 호의적 댓글들. 이런 댓글들은 이윽고 게임과 관련된 추억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갯앰프드 자체보다는 아무 걱정 없이 갯앰프드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그립네요.” “그 때는 친구들이 다 메이플스토리하고 저만 갯앰프드 했는데, 드디어 갯앰이 빛을 보는군요.” 이처럼 게임과 관련된 추억들과 더불어 갯앰프드를 아직도 하고 있는 인간이 있냐는 놀라움, 자기는 애아빠인데 요즘 애들 재우고 다시 갯앰하는 재미에 빠져산다는 등등 보다 깊이 있는 감상이 더해지며 구독자들끼리 의외의 소통창이 열리기 시작했다. 댓글창이 일종의 동창회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어설픈 동창회가 어째서 그렇게 폭발적 반응을 보였던 걸까. 아마도 순전히 갯앰프드와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아무 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인터넷커뮤니티의 댓글처럼 적나라한 인신공격이나 편가르기도 없고 오프라인 모임처럼 자기

자랑을 해댈 수도 없다. 이곳은 순전히 갯앰프드와 관련된 이야기나 격투실력에 대한 자랑 말고는 아무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했다. 누가 댓글창에서 벤츠키를 술자리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카톡프로필로 여자친구 자랑을 하는 모자란 짓을 하겠는가. 혹여나 그런 자가 있다면 번지로 저 아찔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 친칠라의 채널은 더 이상 단순한 게임 채널이 아니었다. 이 채널, 이 댓글창은 게임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갯앰프드에게 대한 리스펙으로 무장한 강호들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겉보기엔 귀여운 가분수 캐릭터가 서로 아기자기하게 싸우는 애들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20년이 되는 시간동안 쌓아올린 달인들의 기술은 이미 모니터 스크린을 뛰어넘어 갯앰프드세계의 모든 유저 및 구독자들에게 그 절륜한 무공을 느끼게 했다. 그들의 무공을 어찌 이 알팍한 지면으로 다 옮길 수 있으리!

계급장 떼고 오로지 무공으로만 맞붙는 세계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꼬 유튜버, 직장인, 대학(원)생 등이 강호에 입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호는 어렸을 적 즐겨했던 갯앰프드와는 그 생태계가 많이 달랐다. 20년이 지나 이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갯앰프드는 복귀유절들이 꿈꾸는 것 같은 철없는 유년시절의 놀이터가 더 이상 아니었다. 이곳은 무혈입성이 불가능한 세계, 오직 힘과 실력으로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비정의 세계였다.

일례로 하꼬 유튜버 ‘빠빠로’는 왕년에 용발톱 좀 날려봤다는 자랑을 하며 자신만만하게 갯앰프드에 들어갔지만 딱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유저 한명에게 처참히 농락당했다. 어퍼컷을 한 대 맞고 공중에 뜨자마자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내려오질 못했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빠빠로는 키보드 샷건을 치며 죄 없는 키캡만을 화면 너머로 날려대고 있었다. “빠빠로 허공답보중임?” 무한콤보를 날리면서도 그 이름 없는 고수는 조롱의 미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빠빠로의 절규는 많은 복귀 유저들의 공감대를 샀는지 조회수 떡상이라는 의외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 절규는 오롯이 진심만이 담겨있던 듯하다. 더 이상 빠빠로를 갯앰프드에서 볼 수 없었으니.

이처럼 손쉽게 포기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기어코 살아남아 수련을 지속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실력 있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교본삼아 본파를 이루고 있었다. 갯앰프드 랭킹 래더1위 스타더스트는 플레이스타일이 무뚝뚝한 정공법이었는데, 유저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실전기술들을 개발해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곤 했다. 공중에서 2연타로 공격을 하는 비연각, 2인이 팀을 이뤄 교대로 어퍼컷을 날리는 무한어퍼, 반격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맞은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꺾어 카운터를 날리는 꺾반 등.

자신이 스타더스트의 제자인줄도 모르고 그의 기술들을 독학했던 수많은 유저들도 있었다. 그들은 눈대중으로 배운 이 기본 기술들에 수많은 변형과 응용, 재치를 더해 빅데이터 처리가라 할 정도의 경험을 쌓아올렸고, 스타더스트의 기술들은 이미 그것이 원래 갯앰프드세계의 공리라도 되는 듯이 유저들의 의식 속에 편재하게 되었다.

더스트 같은 정파가 있다면 친칠라 류의 사파도 있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손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달인이 분명하다.’ 넷상에서 흔히 돌아다니곤 하는 이 명언은 친칠라 류의 제자들에게 적합해 보였다. 그들은 시종일관 장난하듯이 게임을 했다. 가볍게 터치하거나 몸으로 밀어서 번지를 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따라 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떨어트리면서 진지한 무공수련자라도 되듯이 외치곤 했다. “친칠라류 오의! 빠따로 대갈통 존나 후리기!!”

이들은 뚜렷한 계보나 연대의식이 없었지만 자기 나름의 고인물 플레이를 구사하며 그 악동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락질에 분한 유저들이 그대로 되갚아주려 해도 갓 복귀한 유저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

이 강호의 세계가 다른 국면의 투쟁을 맞게 된 것은 전적으로 친칠라의 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칠라는 유튜버를 시작한 지 1년 즈음, 구독자 수로는 10만 정도가 되었을 때 폭탄선언을 했다.

“나 친칠라는 앞으로 중국대륙의 갯앰프로 진출을 하겠다. 냥♥”

한반도라는 땅 만으로는 협소했는지 중국이라는 강호의 근본에 도전장을 내건 것이다. 유저들은 탄성을 내지르며 환호했다.

“친칠라의 번지는 중국에도 수출이 시급한 품목이다.”

“칠라야 형은 네가 자랑스럽다. 온갖 한국인들을 모욕하더니 드디어 애국심을 가지게 되었구나.”

“갈 땀 가더라도 번지는 몇 번 더 보여주고 가라. 씹새까.”

친칠라는 중국서버에서 활동을 한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중국어는 언제 또 배웠는지 채팅으로 한자말을 빠르게 쳐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타이완 넘버완’이나 ‘나는 베이징의 천안문을 사랑해. 천안문 위로 태양이 뜨네.’ 같은 대對중국인신공격무기였다. 상대를 녀다운 시키고 나서 늘 스프레이를 통해 맵 어딘가에 대만 국기를 그리고 그를 배경으로 귀여운 아이돌 춤을 추는 칠라의 모습은 중국 내 수만의 갯앰프 유저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를 따거로 불러라. 꺄>< 이 넓은 중국대륙에도 나를 뛰어넘을 자가 없구나. 냥♥”

물론 친칠라를 따거로 모시는 중국유저는 아무도 없었다. 따거는커녕 접속을 종료할 때까지 친칠라를 따라와 게임을 방해할 뿐이었다. 물론 그런 유저들은 자비 없이 친칠라의 번지로 절벽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였다. 이제 한국의 유저들은 친칠라를 명실상부한 대종사로 모시기 시작했다. 애비물면애비앙이라는 유저는 ‘타이완넘버완 중국인 짜장면 그릇에 담아 비벼버리기’라는 중국조롱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어쩌면 친칠라는 우리 이삼십대 남자들의 따거가 되기 위해 내려온 걸지도 모름. 그는 진짜 게임을 즐기는 남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음. 그 증거가 국적이나 유명세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을 끌 받게 한다는 거임. 지난 번에 스타더스트한테 알짬 없이 번지날리는 거 봤음? 그 누가 유튜버들끼리 주최하는 공식 게임에서 래더 1위한테 꿈수로만 게임을 할 수 있겠냐. 친칠라 이 새끼는 호주 대륙 한 가운데 던져놔도 마오리 헬창들마저 조롱할 새끼임. 친칠라는 지금 회사생활에 치인 나한테 하나의 영감 중에 하나가 돼버림.”

애비앙의 장광설 밑으로 덧글이 달렸다.

“말이 되냐 병신아. 칠라가 뭘 스승이여.”

“아니, 지금 내 말을 이해 못하는 너는 친칠라의 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회사에서 사수한테 부당하게 갈굼 당하거나 알바 하는 데 사장한테 최저시급마저 떼여본 적 있음? 그때 어떤 생각이 들? 제대로 대응이나 해봤음? 해봤어도 유쾌한 마음으로 지내기 힘들지 않음?”

“ㅇㅇ 어쩌라고?”

“그럴 때 인생이 게임이다 생각하라 이 말이야. 내가 이 게임의 플레이어고 내가 친칠라다

생각해보라고. 영감 확 안 오냐? 한껏 번지 날리고 아이돌 춤추는 기분으로 살아보라고.”

“현실에서 상사 상대로 번지 시키면 바로 회사 잘리잖아. 복귀유저도 못될 거 같은데ㅋㅋ. 애비몰더니 맛이 가버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병신아. 여튼 혹시나 이 댓글을 보는 중국유저들이 있다면 내 글을 보고 친칠라의 넓은 아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람. 이상 끝.”

애비앙의 자기위로에 생각 외로 무수한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현실이랑 게임이랑 구분 못하는 방구석 찌따라든가 현실에서 안 풀리니 게임에서 사람팬다든가 하는 부정적 댓글도 더러 있었지만 소수였다. 대부분은 애비앙의 의견에 동조했다. “맞어. 나도 친칠라가 리더의 자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서로 별다른 차별 없이 이런 데 모인 것도 친칠라가 갯앰유튜브를 먼저 열었기 때문이니까.”, “아마 중국에서도 갯앰은 남자들만 하겠지. 격투 게임이니까. 개네들도 좀 시각을 넓혀보면 애비앙말에 공감할 듯.”, “글세 일본 갯앰프드에도 진출한다면 난 큰형님으로 모실 생각이 있음.”

채널의 훈훈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즈음 친칠라는 한 중국 유튜버의 폭로로 인해 서버의 집중타겟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저 새끼 한국인 아니냐? 나 유튜브에서 본 것 같다.”

흔까오싱이라는 중국의 신생유튜버 한 명이 한국의 갯앰유튜버들을 서칭하는 과정에서 봤던 친칠라 채널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그때부터 친칠라는 중국채널에 급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제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로 ‘다구리’를 당했다. 친칠라가 모두까기인형이므로 어찌면 중국인과의 호형호제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유저들의 바람과 달리 중국유저들은 친칠라 잡기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윽고 친칠라 채널에는 알아듣지 못할 한자어로 적힌 흔까오싱의 댓글이 고정되었다. 댓글에는 친절하게 한국어로 번역한 흔까오싱의 선전포고가 있었다.

“앞으로 흔까오싱을 비롯한 중국유튜버들은 친칠라에 대항해 한국유저들에게 반격을 개시하겠다. 교전은 12월 24일 토요일 19시 중국갯앰채널1. 진짜 따거가 누구인지 가려보자. 친칠라는 필참하기 바란다.”

한국유저들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대륙의 기상인가? 생중계 팝콘각이다.”

“우리 여친 없는 거 알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잡았네. 씹새들 아님?”

“칠라야. 야구방망이 닦아 놔라. 네 본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친칠라는 친절하게도 AI 중국말을 더빙해 공식영상을 올렸다.

“응전하겠다. 중국인들아. 부르르~ 오랜만에 칠르가즘 오지게 온다. ㄱ! 단, 번지 못하게 낭떠러지가 없는 맵은 하지 않을 거야. 덧붙여서 게임에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유저들을 모으겠다. 생중계를 위해 실력과 유튜버들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지원하실 분은 댓글에 <고>0<.”

친칠라가 응전개시를 선언한 날은 귀가 시리도록 추운 12월 초의 한밤이었다. 그러나 친칠라의 참전선언은 따뜻한 고구마처럼 유저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덥혀주기에 충분했다. 유저들은 유럽의 축구프리미엄리그나 NBA 결승을 앞두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알바 중에도 운전 중에도 심지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그들만의 갯앰리그를 손꼽아 기다렸다.

약속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친칠라 외에 참전하는 유튜버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저들은 유튜버 말고도 고수들이 많은데 왜 그들만 참가하냐는 불만을 표시했다. 유저들은 진심으로 이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단순히 자기들 유튜브를 키우는 욕심으로 대전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따지는 이도 있었다. 물론 국가에서 공인된 행사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친 없는 남정네들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이지만, 이 대전은 사내들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는 요지였다. 누군가는 이 갯앰대전이 차후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왕년의 ‘스타크래프트’ 같은 범국민적 게임의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갯앰프드 종주국으로서 신중하고도 진지한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희망찬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저들간의 분열을 잠재운 것은 래더 1위 스타더스트의 참전 선언이었다. 스타더스트는 제일의 협객답게 오합지졸의 사기를 정돈할 줄 알았다.

“전국의 갯앰프드 유저 여러분. 저희가 돈이 없고 여친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 대전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질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선수들이나 유저들끼리 분열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 일이 좀 되게 해봅시다. 이겨봅시다. 이겨놓고 나중에 따져 봐도 될 문제 아닙니까. 유저 여러분이 이런 단합력을 못 보여주시면 아무리 고수들이라도 여유롭게 플레이하기 힘듭니다. 처음이다 보니 실수란 있긴 마련이고 훗날에 이 실수가 갯앰프드 리그나 갯앰프드 프로게이머를 부활시키는 주춧돌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올해로 갯앰프드가 21주년이 되었고 저 스타더스트는 이 갯앰프드를 20여년 가까이 해온 사람입니다. 갯앰프드랑 결혼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라구요. 그런 제가 이 리그에 출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 자존심 다 걸고요. 유튜버들의 실력? 부족합니다. 근성?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갈고닦은 비기가 저 중국대륙이라고 해서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까? 다른 유튜버들을 못 믿겠거든 저 스타더스트를 믿으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제 실력을 믿으세요. 이걸로 답변이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스타더스트의 공식참전 선언 뒤로 댓글창은 광란 그 자체가 되었다. 유저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한국대표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생각이 짧았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우리가 사내답지 못했다.”

“스타더스트 참전하면 게임 존나 시시해질 듯. 그래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뭐 결혼했다는 새끼가 저리 말하면 믿어줘야지. 근데 섹스는 어떻게 함?”

“갯앰프로게이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브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그래도 중국한테는 못 저~~”

“더스트야. 스킨 마오쩌둥으로 장착하는 건 어때?”

“나는 베이징의 천안문을 사랑해. 천안문 위로 태양이 뜨네.”

시간은 군밤처럼 튀어 단숨에 24일 이브가 되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도 친칠라의 대기방은 몰려드는 유저들의 채팅에 폭발할 지경이었다.

“이야 시작하기 4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개떼같이 몰려들었네. 게이들 쏠로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있노?”

“역시 갯앰프드 유저들은 실망을 시키지 않네. 이정도면 이브 저녁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온 거 아니냐.”

“칠라야. 이 정도 남성네들이면 걸그룹이라도 하나 초대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니?”

“왜 남자만 있을 거라 생각해?”

“설마 여자? 결혼 해줘. 갯앰하는 여자가 이상형이야.”

“진짜 여자겠냐. 병신아. 분내 말더니 결혼까지 상상하네.”

마침내 한국시간으로 12월 24일 오후 6시 55분이 되었고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실시간 댓글창은 ‘ㅋㅋㅋㅋㅋㅋ’나 ‘가즈아!!!!’ 같은 기분 좋은 흥성거림과 힘찬 파이팅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스타더스트가 나와 게임규칙을 잘 모를 신규 및 복귀 유저들을 위해 친절히 대전방식을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 각 진영은 각자 4명씩 플레이어를 선별해서 대표팀을 구성했습니다. 격투는 원형격투장에서 모든 인원이 각자의 케이지에 갇힌 후 시작됩니다. 양팀에서 한명씩 케이지에서 나와 교대로 싸우는데요, 자기 팀원이 넉다운 되면 다음 팀원이 나와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식이죠. 팀원이 나오는 순서는 랜덤입니다.

경기시간은 충분히 주어지지만 시합이 오래 걸려 케이지에 남아 있는 인원이 있다면 타이머가 100초를 가리켰을 때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방사됩니다. 서로 죽을 때까지 치고받다가 최후까지 살아남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간단히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유명무실한 번지계의 최강자 ‘친칠라’, 방출한 볼에 맞은 상대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트랜스볼의 달인 ‘로꾸꺼’, 잡는 무기마다 거대화시켜 아이템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거대화장갑의 일인자 ‘조선왕조썰룩’, 그리고 저 스타더스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강력한 전력만 선별한 것에 대해 유저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미친 ㅋㅋㅋㅋㅋ”

“스타더스트가 일 제대로 했네. 선수 픽 개 잘한 듯.”

“해당 악세사리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만 뽑았네.”

“이 정도 전력이면 중국에 페이커가 있다고 해도 비벼볼만 할 듯.”

“이건 버그나 핵 없으면 절대 못 이긴다.”

“아 벌써부터 국뽕 차오르네.”

스타더스트는 장내를 진정시킨 후 중국선수들을 연이어 소개했다.

“자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국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선수들은 생소하실 것 같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흔까오싱’이 있습니다. 흔까오싱은 우리에게 고전악세사리로 알려져 있는 용발톱의 고수입니다. 용발톱이라는 게 한국유저들한테는 흔하디 흔한 악세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흔까오싱의 채널을 살펴보니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용발톱을 쓰던 모습이 보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전문유튜버 ‘코리안킬러’입니다. 사이보그 캐릭터답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으며 소형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부가기술이 있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다음은 그래플러 기술에 특화된 캐릭터 사이버돌쇠의 고수 ‘칭따오’입니다. 적을 포박한 후 아군과 협공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100초 케이지 방출 시에 협공해온다면 여간 까다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온갖 무기 활용과 실력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캐릭터 군인을 찍한 ‘붉은수수밭’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실력이나 전략 모두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고수들이 아니면 제대로 다루기 힘들다는 군인, 그 군인의 힘을 극대화해 4단 콤보를 넣을 수 있는 파워슈트를 끼고

나왔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파워슈트는 한국에서도 잘 다루는 유저들이 많지 않은데요. 의외로 무시무시한 고수일지 모른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더스트가 소개를 마치자 바로 7시가 되었고 시합은 지체 없이 진행되었다.

한국 팀의 첫 타자는 스타더스트였다. 댓글창은 광란의 호응으로 설 새 없이 드글땀다. 실시간 댓글창이 올라가는 기세는 스타더스트의 무력을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듯 했다. 중국 팀의 첫 타자는 흔까오싱이었다. 댓글창에는 무조건 한국의 승리라고 확신하는 댓글이 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팀원은 나오지도 않고 스타더스트 선에서 전부 정리될 듯.”

“아무리 꿈수 부려도 래더 1위는 이길 수가 없다.”

스타더스트는 차분히 원형경기장의 내부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이모션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흔까오싱이 점프하더니 발차기를 내질렀다. 일명 ‘점발’로 인사를 대신한 것이다. 스타더스트는 가볍게 가드로 막아주고는 반격기를 날렸다. 타격점에 푸른 불꽃이 잠시 일었다.

“이것이 중국의 예의입니까?”

스타더스트의 불만에 흔까오싱은 알 수 없는 한자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댓글창의 시청자 중 누군가가 중국말을 번역했다.

“째째하게 왜 이래. 격투가의 인사는 가벼운 주먹다짐으로 하자고.”

시청자들은 여지없는 빌런의 등장에 격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

“중국이 중국했네.”

“명언 하나 올립니다. 현실세계의 울분을 게임에서 해소하지 맙시다. -마오쩌둥-”

시청자들이 서로의 드립에 웃을 시간도 주지 않고 흔까오싱은 다시 공중으로 힘차게 뛰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점발. 또 다시 점발을 날릴지는 몰랐던지 스타더스트는 가드하지 못하고 머리쪽에 타격을 입었다.

“아 점발충 등장이네 ㅋㅋㅋㅋ 저럴 거면 용발은 왜끼고 나왔냐.”

“저런 게 대표라고 나와 가지고 스타더스트랑 게임을 붙고 있네.”

점프 후 발차기, 즉 점발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대각으로 발차기를 내지르는 공격인데 타점이 높고 공격을 한 후에는 백덤블링으로 이동해 타점보다 몇 발자국 뒤에 착지하기에 반격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다. 초보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남용하면 게임의 재미를 떨어트려 유저들은 이 점발만 해대는 플레이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명 점발충에 대한 혐오는 꽤나 유서가 깊어서 유저들은 이런 플레이어를 만나면 지체 없이 린치를 가하곤 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나머지 팀원들이 전부 케이지에 갇혀 있어 이 점발충을 막아낼 재간이 없던 것이다.

흔까오싱은 멋드러진 기술 하나 쓰지 않고 여기저기서 점발만 날려댔다. 점발은 초보적인 기술이라 스타더스트가 가드하긴 어렵지 않았지만 반격도 쉽지는 않았다. 공격 후 타점이 멀어져 스타더스트가 다가서려고 하면 흔까오싱이 다시 점프 후 점발로 회피를 하거나 연이은 공격을 해댔기 때문이다. 스타더스트는 모든 공격을 전부 막아내긴 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가드가 풀리거나 경로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라이트한 공격을 몇 대씩 허용해주고 있었다. 흔까오싱은 의외로 한 대도 맞지 않고 요리조리 스타더스트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타더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초보 중에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점발충이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의 공격으로 자신의 HP를 조금씩 깎아가고 있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거 버그…아니야?’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다. 지난 세월동안 고수들만을 정통으로 상대해왔기 때문에 이 점발충이라는 약체가 지닌 고유의 엇박 타이밍이나 타점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졌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모든 신체근육이 확대 향상된 보디빌더가 그 우람한 팔 근육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등 한가운데에 앉은 모기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원리라고나 할까… 흔카오싱은 조막막한 모기가 되어 집요하게 보디빌더의 피부를 찢러대고 있던 것이다. 이런 고수세계의 아이러니에 대해 알지 못할 유저들은 이제 화살의 방향을 스타더스트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스타더스트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아님? 아니 왜 점발충을 못 잡아?”

“저 새끼 중국한테 돈 받은 거 같음.”

유저들의 격앙된 반응에 스타더스트는 페이스를 잃고 흔카오싱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서둘러 잡으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흔카오싱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스타더스트를 가장자리로 유인했다. 상대가 절벽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착각한 스타더스트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 흔카오싱은 그 순간을 노려 스타더스트의 등뒤로 빠르게 점프했다. 그리고 자신을 놓친 스타더스트가 절벽에 아찔하게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점발을 내질렀다. 가히 아크로바틱한 기예를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던 것이다. 흔카오싱의 마지막 점발에 등을 한 대 툭 맞은 스타더스트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번지당한 것이다.

“와... 이게 뭘 일이냐.”

“난 중계 끄고 여친이나 만나러 가련다.”

“돈 받고 게임하니까 좋냐?”

스타더스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아무런 채팅도 치지 않고 자신의 패배를 씁쓸히 되돌아보고 있었다.

흔카오싱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 마이클잭슨 댄스를 추며 요란법석을 떨고 있었다. 현란한 조명과 함께 흔카오싱이 문워크를 마치고 모자를 머리에 얹은 순간이었다. 흔카오싱의 몸이 잔상을 일으키며 사라지더니 HP가 갑자기 0으로 떨어졌다. 흔카오싱이 있던 원형경기장 중앙에는 ‘로꾸꺼’가 등장해 있었다.

로꾸꺼의 기이한 등장에 시청자들은 댓글창에 물음표를 띄웠다. 그 중 누군가가 사부의 무공의 비밀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탄성을 내질렀다.

“아! 트랜스볼!”

그렇다. 흔카오싱이 춤을 추고 있던 사이 케이지에서 풀려난 로꾸꺼는 눈치 채지 못하게 바로 절벽 쪽으로 돌진, 투신 직전에 정확히 무대의 정중앙을 향해 상대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트랜스볼을 방출. 트랜스볼은 순식간에 흔카오싱의 몸체에 적중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로꾸꺼와 위치를 바꾸었던 것이다. 흔카오싱은 마지막 댄스와 함께 점발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절벽 밑으로 번지 당했다.

“아랫공기 시원하제?”

무뚝뚝한 스타더스트와 달리 로꾸꺼는 경쾌한 사내였다. 바닥에 옆으로 드러누워 부채질하는 이모션을 선보이며 로꾸꺼는 여유를 부렸다.

그 사이 상대편의 케이지 하나가 또 풀려났다. 붉은수수밭이었다. 유저들은 로꾸꺼가 선사한 유쾌한 기분도 잊어버리고 정체를 알지 못하는 군인 플레이어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수수발은 의외로 침착하게 로꾸꺼가 있는 중앙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재 초보 아님? 트랜스볼 상대로 저렇게 걸어서 다가오는 놈은 처음 봤네.”

트랜스볼은 구체의 속도가 워낙 빨라 상대방은 게임 내내 숨을 헉헉대며 달리지 않으면 그대로 절벽 아래로 위치변환 당하기 십상이었다. 로꾸꺼는 그런 수수발을 여유롭게 관망했다.

“3초 줄게.”

트랜스볼 고수는 재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재빠른 스피드로 여기저기 구체를 발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고수가 3초를 허락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트랜스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수수발은 아이디어 그대로 수수발을 여유롭게 제치며 다가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걸어 들어왔다. 유저들은 초보의 등장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 2, 1”

3초 카운팅을 하자마자 로꾸꺼는 경기장을 벗어나 재빠르게 절벽으로 투신했다. 그리고 위치변환구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수발에게 방출했다. 수수발이 잔상만 남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절벽으로 떨어져 HP가 0이 된 선수는 로꾸꺼였다. 실시간채팅창에 또 물음표가 뜨기 시작했다.

“?”

“버그 걸렸나? 위치 바뀐 거잖아.”

“재네들 핵 쓰는 거 아님?”

핵이 아니었다. 수수발은 구체를 쏜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구체를 쏜 순간 수수발은 파워슈트의 압력을 분출, 고속으로 주먹을 내질러 빠르게 회피한 것이었다. 보통 멀리 상대가 있는 쪽에 빠르게 가로질러 주먹을 내지르는 공격이라 회피기로 사용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매우 창의적인 플레이였다.

“왜 아이디어가 붉은수수발인줄 알아?”

번지당한 흔까오싱이 말했다.

“주먹 한 번 내지르면 플레이어들이 꺾인 수수발처럼 고꾸라지거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유연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고수의 등장에 채팅창은 염려와 응원의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어느덧 플레이타임이 100초에 다다른 것이다. 남은 선수들이 전부 방출되었다. 한국 쪽 선수는 거대화장갑 고수 조선왕조썰룩과 친칠라 두 명, 중국 쪽 선수는 붉은 수수발 외에도 안드로이드 유저 코리안킬러와 사이버돌쇠 유저 칭따오 두 명이 더 있었다. 전세가 명백히 불리했다. 아무리 고수 두 명이라 하더라도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다. 게다가 안드로이드와 사이버돌쇠는 명중률은 낮지만 치명적인 공격력과 연계가 좋은 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팀은 빠르게 경기장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자리를 선점했다. 조선왕조썰룩은 유저들을 안심시키며 ‘연장’을 들고 나갔다. 평범한 쇠파이프였지만 그가 거대화장갑을 끼고 잡아 올리니 기동만한 크기로 변해있었다. 작은 체구의 캐릭터가 든 거대한 쇠파이프는 경기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해보였다. 조선왕조썰룩은 쇠파이프를 경기장 중앙을 향해 시원하게 내질렀다.

“킹 세종 나가신다!”

중국팀은 재빠르게 타격점을 피했다. 아슬아슬하게 경기장 끝에 걸쳐있던 중국팀은 역공을

친칠라가 본 경기장으로 들어오자 안드로이드 코리안킬러가 미니언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